

2016학년도 수능대비

인터넷수능 B(문과)

고저 시가

변형 문제

 지인국어교육연구소

‘알고 있는 것’이 ‘알게 하는 것’에 이바지해야 한다.

‘잘 했다’보다는 ‘잘 하고 있다’를,

‘잘 하고 있다’보다는 ‘잘 할 수 있다’를 더 중시한다.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으로 문제를 풀거나 ‘머리’로 해결하기보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한다.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핵심’을 짚어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차이보다는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수많은 관계 그리고 수많은 시공으로 열려 있는 관계가 바로 관계망입니다. 그 관계망을 알아야 합니다.

CONTENTS

e+Plus 인수B 고전시가

인터넷수능B 고전시가 문제

고전시가 B-1 <충담사,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4
고전시가 B-2 <처용, '신라 처용가', 작자 미상 '고려 처용가'	8
고전시가 B-3 <작자 미상, '사모곡', '상저가'	12
고전시가 B-4 <정서, '정과정(鄭瓜亭)'	16
고전시가 B-5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20
고전시가 B-6 <작자 미상, '봉선화가(鳳仙花歌)'	26
고전시가 B-7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누항사(陋巷詞)'	30
고전시가 B-8 <허전, '고공가(雇工歌)'	34
고전시가 B-9 <홍순학, '연행가'	40
고전시가 B-10 <'수양산 바라보며~, 주려 주그려 호고~, 안반 설중~>	44
고전시가 B-11 <'무어별', '영반월'	48
고전시가 B-12 <'면앙정잡가, 짚방석~, 전원에~>	52
고전시가 B-13 <'몸은 낫선 땅에서~, 내라 그리거니~>	56
고전시가 B-14 <신계영, '전원사시가'	57
고전시가 B-15 <이담영, '사노친곡 십이장'	59
고전시가 B-16 <'님 그려 겨오~, 어이 못 오던다~, 청천(靑天)에~>	60

열치매	열치매
나토얀 드리	나타난 달이
흰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흰 구름 좇아 떠감이 아니야?)
새파른 나리여히	새파란 내(川)에
기랑(耆郎)의 즈시 이슈라	기랑의 모양이 있어라!
일로 나리시 지벽히	이로 냇가 조약에
낭(郎)의 디니다샤온	낭의 지니시던
믹스믹 궂홀 좇누아저	마음의 끝을 좇과저.
아으 잣스가지 노파	아으, 잣(柏) 가지 드높아
서리 몬누올 화판(花判)이여	서리를 모르올 화랑장(花郎長)이여!
- 양주동 역	

1. 이 작품은 <보기>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작품과 <보기>를 잘못 이해한 것은?

보기

흐느끼며 바라보매 /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나간 언저리에
 모래 가르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김완진 해독

- ① <보기>처럼 읽을 때 기파랑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풍자적으로 바뀐다.
- ② 해석이 다양한 이유는 향찰 표기 원칙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 ③ 이 작품의 '나리'는 기파랑의 맑은 인품을, <보기>의 '물가'는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 ④ 이 작품의 '지벽히'는 기파랑의 원만한 품성을, <보

기>의 '자갈 벌'은 화자가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⑤ 이 작품의 화자는 달이 구름을 쫓아가는 모습을 직접 봤지만, <보기>의 화자는 이미 지나간 달을 상상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에는 여러 자연물이 등장한다. 이 자연물들은 화자와 관련하여 내용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대상과 관련하여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 ① '달'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질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② '구름'은 화자의 처지를 안타깝게 그려 낸다.
- ③ '냇물'의 속성은 '기랑'의 인품을 형상화한다.
- ④ '조약돌'의 모양새는 '기랑'의 인품을 빗대어 보여 준다.
- ⑤ '서리'는 시적 대상과 대립 관계를 이룬다.

3.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화자와 대상을 대비시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 형식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이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과 점층의 표현상 특징이 나타난다.
- ② 대상 간의 문답을 통해 시상이 전개된다.
- ③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표기된 모습을 보인다.
- ④ 자연물에 빗댄 고도의 상징적 표현이 나타난다.
- ⑤ 10행으로 구성되며,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5. 이 노래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가 강하게 표현되어 애상적인 면이 잘 드러나고 있는 노래야.
- ② 기파랑의 인물됨을 자연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부각한 노래라고 할 수 있어.
- ③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되어서 배경 설화를 알지 못하면 해석하기 힘든 노래야.
- ④ 이 노래는 기파랑과 헤어진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극복하고자 하는 노래로 볼 수도 있어.
- ⑤ 충당사라는 작가를 고려할 때, 이 노래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6.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대상의 정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군.
- ② 자연물을 통해 시적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어.
- ③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을 흠모하며 동경하고 있어.
- ④ 낙구에서 화자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네.
- ⑤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문답 구조로 이루어져

있군.

7.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 문장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선명한 명암의 대비로 구조의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자연물을 보조 관념으로 하여 대상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8.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한 시상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종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9. 이 시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흰 구름'은 기파랑이 떠나간 곳, 즉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세계로 해석된다.

- ① 화자의 추모의 정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 ②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 ③ 대상과 함께 지냈던 즐거웠던 과거의 기억을 일깨운다.
- ④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⑤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정보를 화자가 인식하게 된다.

(가)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에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아아, ㉠**갯 가지** 높아
 서리를 모를 화랑이여.

- 충담사, <찬기파랑가>(양주동 역)

(나)
 말 없는 ㉡**청산(靑山)**이요 태(態) 없는 유수(流水)
 로다
 값 없는 청풍(淸風)이요 임자 없는 명월(明月)이라
 이 중에 병(病) 없는 이 몸이 분별(分別)없이 늙으
 리라

- 성혼

1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와 그리움이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
- ②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변해 버린 시절에 대한 탄식과 비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간의 유한함과 대비되는 자연의 무한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은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
- ② ㉠은 대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은 대상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은 과거 지향적인 화자의 태도가, ㉡은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은 대상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의 모습이, ㉡은 대상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 ⑤ ㉠은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가, ㉡은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준 뒤를 드뒤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 뒤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작자 미상, <정읍사>

[나]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 가는 것 아니야?

㉢새파란 나리에

기랑(耆郎)의 모습이 있어라.

일로 나리 ㉣조약에

낭(郎)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누아져

아아, ㉤갯가지 높아

㉥서리 모스시울 화반(花判)이여.

- 충당사, <찬기파랑가>

12. [가]와 [나]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정조(情調)는?

	[가]	[나]
①	기다림	기원
②	기원	예찬
③	회한	예찬
④	회한	풍자
⑤	기다림	예찬

13. 내포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시어가 들어 있는 것은?

- 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
처럼 박힌다.
- ② 벼는 가을 하늘에도 /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 바람 한 점에도 /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
다.
- ③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 자칫 가느린 길이 이어
가라. / 나는 나아가리라. /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
자……산경(山耕)을 김매는
- ④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遠)에 새 사람
나단 말가 /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있어
- ⑤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샅기 치니, / 춘
풍(春風) 옥덕성(玉笛聲)에 첫 즈음 뺨던지

14. ㉡~㉥ 중 기파랑의 원만한 인품을 상징하는 시어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15-인수 B	
문 학	고전시가 B-2 <처용, 신라 처용가, 작자 미상 고려 처용가>

(가) 동경(東京) 불기 드라라
 밤 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릭 보곤
 가로리 네히러라
 두보른 내해엇고
 두보른 누기헛고
 본딤 내해다마르논
 아사늘 엇디헛릿고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 것이었고
 둘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 김완진 역

(나) 동경(東京) 불근 드래 새도록 노니다가
 드러 내자리를 보니 가랴리 네히로새라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
 이런 저기 처용(處容)아비웃 보시면
 열병대신(熱病大神)이사 회(膾)스가시로다
 천금(千金)을 주리여 처용(處容)아바 / 칠보(七寶)를 주리여 처용(處容)아바
 천금(千金) 칠보(七寶)도 마오 / 열병신(熱病神)을 날자바 주소서
 산(山)이여 므히여 천리외(千里外)예 / 처용(處容)아비를 어여너거저
 아으 열병대신(熱病大神)의 발원(發願)이샷다

동경 밝은 달 아래 밤새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내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로구나! 아!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뉘 것인가.
 이럴 적에 처용아비만 본다면 열병신이야 헛감이로다.
 천금을 주랴 처용아비야. / 칠보를 주랴 처용아비야. 천금 칠보도 말고 / 열병신 잡아 날 주소서.
 산이나 들이나 천 리 밖으로 / 처용아비를 비켜 갈지어다. 아! 열병대신의 발원이로다.

*발원: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빚. 또는 그 소원.

1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곡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② 역신의 마음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 ③ 향가 <처용가>를 삼입 가요처럼 처리하였다. ④ 역신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변호하고 있다.
- ⑤ 처용의 권위에 대해 화자가 이미 안정하고 있다.

16. <보기>는 <처용가>의 배경 설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신라 제 49대 헌강왕 때, 왕이 개운포에 놀러 나갔는데 날씨가 변덕스러웠다. 신하에게 물으니 동해 용왕이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절을 세워 주니, 날이 개었다. 동해 용왕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왕을 돕게 하였다. 왕은 그를 처용이라 부르고 미인을 아내로 주어 살게 했다. 그런데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훔쳐가 버려 밤에 몰래 들어와 동침하였다. 밤늦게 노닐다가 집에 들어와 이를 보고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갔다. 그러자 역신이 감복하여 처용 앞에 무릎 꿇고 말하기를, “당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에는 들지 않겠다.

- ① 처용이 분노하며 한 말이다.
- ② 처용이 체념하며 한 말이다.
- ③ 용궁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 ④ 인간에 대해 처용이 환멸을 느끼며 한 말이다.
- ⑤ 상식을 뛰어넘은 처용의 너그러움을 보여 주는 말이다.

17. (나)의 ‘처용아비’와 ‘열병대신’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를 빼앗긴 체념과 달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당대의 현실에 대한 환멸감과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자기 절제와 관용으로 축사(逐邪)의 힘을 획득하고 있다.
- ④ 현실에서 패배한 자아에 대한 자책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헤어짐의 상황을 정신적으로 극복하여 기다림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18.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처용의 위력만을 (가)는 처용의 관용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는 처용의 관용만을 (가)는 처용의 위력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는 처용의 관용과 위력을 (가)는 처용의 관용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처용의 관용만을 (가)는 처용의 관용과 위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와 (가)는 모두 처용의 관용과 위력을 드러내고 있군.

19.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역신에 대한 분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동일하다.
- ③ (나)의 화자는 (가)와 마찬가지로 역신(疫神)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④ (나)는 대화체의 형식이 나타나 희곡적 분위기가 강하다.
- ⑤ (가)와 마찬가지로 (나)는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주술적 성격이 강하다.

[가]

東京明期月良	식불 불기 드래
夜入伊遊行如可	밤 드리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드러사 자리 보곤
脚烏伊四是良羅	가르리 네히어라.
二盼隱吾下於叱古	둘흔 내해엇고
二盼隱誰支下焉古	둘흔 뉘해엇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딤 내해다마른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아사늘 엇디흐릿고.